



# 까나리

*Ammodytes personatus*

청정해역 모래밭에서 서식하는 까나리는 다른 말로 양미리라고 불리운다. 우리나라 전연해, 일본, 알래스카, 시베리아 이남에 서식한다. 까나리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칼슘과 DHA-EPA 등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액젓 등으로 많이 먹고 있다.

몸은 원통형으로 가늘고 길며, 입은 크고 아래턱이 윗턱보다 길며 이빨이 없다. 등부분의 색깔은 녹갈색 또는 청색이며, 배부분은 은색 광택을 띤 흰색이다.

서식해역에 따라 다르지만 성숙어는 멸치와 꽁치의 중간크기로 보통 전장 25cm이다. 우리나라 바다의 3면 연안에 서식하는 연안성, 냉수성 어종으로 주로 바닥이 모래질인 내만이나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수온 15℃ 이상이 되면 모래속에 들어가 여름잠을 지는 습성이 있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 북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은 겨울에서 초봄에 이루어지며, 바닥이 모래나 조개껍질이 섞인 모래질인 수심 20~30m에서 산란한다. 주로 먹는 것으로는 부유성 소형 갑각류, 곤쟁이류, 소형어류, 동물성 플랑크톤 등을 먹는다. 